

문화원 가족과 중국을 다녀와서...



온양문화원 원장
김 시 겹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 30분에 온양문화원 문화회원 30여명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상해 푸둥 공항에 2시간여만에 도착하였다.

서늘한 가을 날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였고, 공항의 환경은 우리보다 못했으나 사람은 많이 붐볐다. 부산한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까지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상해가든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나절 상해시내를 관광하면서, 야경까지 둘러 보았다. 상해시는 양자강 어귀에 있는 상공업도시와 강어귀어항과 상류 39km까지 내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수만톤급 외항선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세계적인 무역항이다. 서울의 11배 크고 세계 뉴욕, 런던 등 선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규모였고, 주산업은 방직, 기계, 조선, 전기, 화학, 비료공업등이 활발하다. 우리 탐방가족에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윤봉길의사의 의거 현장인 홍구공원에서는 “丈夫出家生不還”이란 글귀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윤의사 영정앞에 머리숙여 묵례를 한참동안 드렸다. 이어서 이튿날 항주를 둘러 보았는데 시텐무산맥의 기슭과 시후호 연변에 위치한 도시로 건축물과 정원이 아름답고 옛정취가 풍겨 이름난 사찰들, 산, 계곡들이 들어차 있어, 과연 13세기 무렵 이탈리아의 유명한 마르코폴로는 항주에 들렀다가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항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칭송하였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어서 셋째날 소주시를 둘러보았는데, 소주는 동양의 베니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은 물의 도시였다. 사방이 운하로 둘러쌓여 작은 운하들이 교차하고 있으며, 호수, 강, 연못과 아름다운 정원과 구름이 산재해 있어 아름답고, 유명한 호구탑 유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문화원 회원들은 이번 탐방으로 인해 자연의 고마움과 중국문화에 빠져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1926년부터 1932년 직후까지 임시 정부청사로 사용했던 곳이다. 3층으로된 벽돌집으로 1층이 회의실, 2층이 집무실, 3층이 요인숙소와 전서관으로 되어있다. 김구선생의 혼이 서려있는 곳이다. 골목에 위치하여 비좁고 노후된 건물이라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 **외탄** : 외탄지역은 1843년에 처음 개항한 지역으로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공동 조계지역으로 고풍스런 서양식 건물이 많이 있다. 현재 상해는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푸둥지구를 방문하여 시장경제원리에 감쪽놀랐다고 한다.



- **한신사** : 당대 고승한산과 습득이 주지로 있다해서 지은 이름이다. 당나라 시인장계는 “고소서 밖의 한산사 종소리 야밤의 객선에 들리누나”라는 불후의 시구를 남겼다. 이곳은 문물이 많은데다 오랜사찰과 이름난 시구로 하여 국내외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 **호구탑** : 원래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 항려의 묘지였는데 호구라는 이름은 장래를 지낸지 3일째 되는날 백호 한 마리가 나타나 능을 지켰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다.

호구는 전체의 모습이 호랑이를 닮아 붙여졌다고 하며 높이 40.7m의 호구탑은 400m의 언덕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건축물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 피사탑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 **서호 10경** : 서호는 항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5.6km의 타원형호수는 평균수심 1.8m 이내이다. 아침과 저녁 때 느낌이 다르고 비오는날과 개인날 안개낀날과 맑은햇살 느낌이 다르다고 한다.

- **육화탑** : 항주 남쪽 전당 강가의 월운산에 있는 탑으로 겉보기에는 13층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7층 8각탑이다. 송대 (970년)에 건립된 탑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 육화탑은 전당강의 대역류를 막아 달라는 기원으로 세운 탑이다.





해마다 가을에 개최되던 설화예술제와 행사 성축제와 온궁행렬재연(신설)되어 통합된 축제이기에 그 의미는 크다.

중복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와 시민들에게 혼돈을 제거하여 양질의 축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통합되어 온양문화원과 아산예총아산지부가 한팀이 되어 제 1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가 10월 12 ~ 14 (3일간) 신정호 국민관광지에서 22만 아산시민 한마당 축제가 개최되었다.

12일 행사 팡파르를 올린 첫날은 260년 만에 재연된 온궁행렬 출발 퍼레이드와 궁중의상 패션쇼, 맹정승 추모 퍼포먼스, 청백리 및 어린이 맹사성 시상식, 공개방송, 불꽃놀이 등 개막 축하공연이 열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조선시대 임금들이 온양온천에서 휴식과 정사를 보기 위해 많은 임금이 행차 하였던 행렬 재연(아산시청에서 신정호 주행사장까지) 으로 온양온천의 명성과 아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축제였다.

둘째날은 맹사성 추모제와 시조경향대회, 시민, 학생백일장, 실버밴드공연, 국악향연, 춤 교류전, 연

예인 축하공연이 열려 시민, 청소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 호응도가 높아 청소년들에게 높은 꿈과 이상을 갖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골든벨을 울려라와 학생풍물단의 특별공연, 밸리댄스, 댄스스포츠, 청소년 댄스가요제, 불꽃놀이 등을 장식하고 행사의 막을 내렸다.

행사장, 상설프로그램으로 다도 및 생활예절, 천연염색, 허수아비만들기, 맹정승소타기, 맹정승 어록써주기, 사진전, 시화전, 북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일시
2007.10.12(금) ~ 10.14(일)

장소
신정호 관광지

맹사성 승모제 _ 2007.10.10(수) 10:30 _ 맹사성고택



- 주최 온양문화원 한국예총아산지부
- 주관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제전위원회
- 후원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교육청 아산경찰서

온궁행렬



조선시대 임금들이 휴식과 신병 치료를 위해 찾던 온양온궁행렬은 1750년 영조임금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이후 260여년 만에 재연하게 되었다. 12일 첫째날 아산시청에서 신정호 국민관광단지까지 행렬이 이뤄졌고, 아산시 온천동 현 온양관광호텔자리에 위치했던 행궁은 1396년 태조임금이 조선 창업과 더불어 새 도읍지 한양성의 축성으로 인한 피로와 심신이 쇠약해 지자 이를 치유하기 위해 온양온천을 행차하였다. 이후 세종, 세조, 현종, 숙종, 영조 등 많은 임금의 행차가 이어졌다.

특히 온궁은 왕과 왕후가 상주하는 내정전과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는 외정전을 위시로 중앙의 궁내 전각과 중앙정부의 각사로 구성된 조선왕조의 중앙기구를 옮겨놓은 축소판이었다. 역사적으로 소중한 온궁행렬을 재연함으로써 온양관광지의 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축제가 되었다.

청백리 및 어린이 맹사성 시상 (맹정승축제기념)



12일 개막식날에 청백리의 표상인 맹사성의 얼을 숭모하기 위해서 매년 아산시 관내에서 청렴한 공직자와 효 사상이 투철한 학생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을 하였다. 청백리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로선 선비상 김종순(아산시청 법무계장), 스승상 이정희 (온양중학교 교장), 지킴이상 강후섭(선장, 도고예비군중대장)씨가 각각 선정되어 수상되었다. 또한 어린이 맹사성(충.효.문.의.예상)에 충상 이승수(용화초 6년), 효상 박진규(신창초 6년), 문상 이창용(신광초 6년), 의상 김동환(신광초 6년), 예상 서정훈(배방초 6년)이 각각 선별됐다.

골든벨을 울려라



4일에는 맹사성 일대기의 문제를 푸는 ‘골든벨을 울려라’를 비롯한 학생풍물단 특별공연, 화관무, 설화무용제, 댄스시범, 스포츠 댄스시범, 제2회 청소년 댄스 가요제등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제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맹사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문제를 생각하여 흥미가 중심이 되었고, 상금과 상품은 오락적 요소를 가미해서 중간에 넌센스 퀴즈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많은 학생이 이에 즐거워했다.

이날 1등은 신정중학교 이선웅, 2등은 아산중학교 서주훈, 3등은 아산중학교 송하람, 4등은 아산중학교 김준식, 5등은 용화중학교 신동우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다.

체험 프로그램



상시프로 그램으로 다도 및 생활예절, 천연염색, 3인치 그림그리기, 허수아비 만들기, 도자기만들기, 북아트, 페이스 페인팅, 핸드폰 고리만들기, 핸드페인팅, 맹정승 소타기, 맹정승 어록 써주기, 시화전, 사진전, 거리화가, 타로카드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온양문화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도체험에서는 차의 향기를 음미하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체험을 직접 하면서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07 문화탐방 소식

고창읍성



8월 장소 : 전북 고창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외침을 막기 위하여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 총화 축성한 자연석 성곽을 말한다. 이곳 외에도 선운사, 고인돌군, 판소리 박물관, 신재효고택 등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다.

9월 장소 : 중국

중국에서도 유명한 상해, 항주, 소주 등 탐방을 하여 역사 깊은 중국의 여유와 유연성(만만디)의 미학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소주의 상징인 호구탑은 장례를 지낸지 3일째 되던 날 백호 한 마리가 나타나 능을 지켰다는 전설에서 호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소주의 호구탑



김삿갓 문학관



10월 장소 : 강원도 영월

영월에는 고씨굴, 단종역사관, 조선민화 박물관 등 관광명소가 많다.

특히 김삿갓 문학관은 선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2003년 10월에 개관하였다.

본명은 김병연, 호는 난고이며 경기 양주에서 출생하였다.

지구촌화가 되어 가는 청소년 문화

(Global Youth Culture)

연양문화원이사 김 경 주

지식기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즈음 우리의 청소년 문화에도 국제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학연수, 교환학생 그리고 해외여행이 늘면서 세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기술의 발달로 서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장벽은 사라지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가까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혹은 지구촌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화 정체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문화’(Youth Culture)라는 용어는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 1942/1964)가 이성과의 테이트를 즐기며, 성인들의 책임감으로 부터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미국 중산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청소년문화는 대중음악 소비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는 흔히 성인문화와 구분되는 하위문화로 지칭하기도 하며,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도덕적 혼란을 사회 문제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일탈이론가들은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을 적용하여 일탈문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는 기성 세대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대항문화로 혹은 성인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아직 미숙하고 모자란 것으로 보는 미숙한 문화로 규정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특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론 체계나 사고 체계에서 문화의 다원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 동안 가졌던 권위에 대한 허구성이 들어 나고 있으며, 문화의 해체라는 특징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20세기의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1970년대 일어난 예술)이 하나의 의미 있는 문화형식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15-19세)의 인구 비중은 26%로 성인이나 노인, 유·아동과는 다른 그들만이 공유하는 행위양식이나 사고방식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시문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 교복을 줄여 입는 문화,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고 쿠폰 등을 활용하며, 컴퓨터 게임, 패러디와 혼성 모방, 반어와 유희, 패션과 음악 채널을 즐기는 문화 등은 청소년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시 권력에 대해 대응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시각에서 청소년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적 권력은 폭력과 무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경계선을 지키며, 다른 나라를 짓밟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지금의 권력은 욕망과 무의식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문화라는 경계선을 만들고, 또한 다른 나라에까지 보이지 않는 문화 영토를 확장시킨다. 그러므로 미시권력은 ‘무의식’, ‘욕망’, ‘문화’의 영역에 침투하고, 보다 완전한 문화 자본의 논리로 주체를 지배하고 있다. 최근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의 출현과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기초한 역동적인 미디어 문화를 생산하는 통신산업의 발달은 문화 생산과 문화의 정체성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 식민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은 다른 나라도 역시 다를 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 15-24세의 청소년들을 글로벌 미디어 문화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들 청소년들은 2조 달러 이상의 잠재 가능성을 지닌 미디어 상품 소비자로서 다국적 기업과 매스미디어와 정보 기술 분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MTV의 대중음악과 스타일, 할리우드 영화의 주제와 예술 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들 나름대로 인터넷, TV와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문화를 공유한다. 이는 거대 문화 자본의 힘의 영향을 인식하기도 전에 전세계 청소년 문화 속으로 확산되어 간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무조건 우리의 것 혹은 우리 문화만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적 민족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우리의 문화를 현대화하고, 세계화된 서구 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하며, 통합하는 문제가 청소년 문화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촌화된 청소년 문화의 영역에서 문화 정체성은 강조되어야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그들이 즐기는 문화가 그 자체 의미 없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재현된 이미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은 그 자신들이 선택한 이미지와의 동일시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자기 자신만의 의미와 이미지를 재창조함으로써 자기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으며, 향유하고 재창조함으로써 문화를 나름대로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학교 내 교육이나 학교 밖의 문화교육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나의 생일에는 어떤 보석을...

온양문화원이사 윤 용 자

언제나 습관처럼 오른손은 차에 라디오 채널을 열심히 돌린다. 테너 김동규님의 “10월의 어느 멋진날에”가 감미롭게 차안을 가득 메운다. 10월31일-어머! 오늘에 꼭 어울 리는 노래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에메랄드빛으로 물들인 듯 까마득이 높고 길가에 가로수의 잔치는 빛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오팔 보석의 아름다움에 비길까---? 가을에 정취 속에는 여인들이 즐기고 또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보석의 색상을 다 갖추고 있는 듯 하다. 여자라면 누구나 아름다운 보석에 관심을 갖고 분위기와 때에 맞춰서 보석을 장식한다는 것은 누구나 소망할 일인지는 모르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허락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탄생석 하나만이라도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와 성경속에서도 건강과 행복, 성공, 사랑등을 지키기 위하여 몸에 많이 지니고 다닌데서 탄생석이 유래되었으리라 본다.

1월 가넷~어원은 씨앗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잘익은 석류 열매의 색과 같아 루비와 혼동하기 쉽다. 우정과 진실, 정조, 충실을 상징한다.

2월 자수정~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으며 마음의 평화와 성실을 상징한다.

3월 아쿠아마린~바닷물이란 뜻으로 총명과 침착, 용기를 상징하며 동양에서는 산호를 탄생석으로 본다.

4월 다이아몬드~보석의 왕이다. 영원불멸의 상징으로 고귀함과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순수, 청정, 무심, 평화를 상징한다.

5월 에메랄드~행복을 의미하며 불사의심벌로 재판에서도 이긴다고 한다. 동양에서는 비취를 탄생석으로 본다.

6월 진주~건강, 장수, 부를 상징한다.

7월 루비~보석의 여왕이다. 정열과 행운과 애정과 명성을 의미한다.

8월 페리도트~부부화합과 행복을 의미한다

9월 사파이어~자애와 성실, 덕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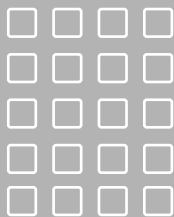
10월 오팔~행복, 희망, 순수, 순결을 상징한다. 오팔의 매력은 색이 움직이는 현상(play of color)은 수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건조하지 않게 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11월 토파즈~진실함을 동반하는 의미로 친구, 애인이 평생함께 한다는 의미다.

12월 터키석~성공, 승리를 의미한다.

탄생 보석중에는 4월의다이아몬드, 5월의에메랄드, 7월의루비, 9월의사파이어 등은 값비싼 보석이지만 그 외에 것은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천연보석과 똑같은 인조보석으로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름답게 애용 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학교 운영



다도 및 생활예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다도”

다도(茶道)란 차를 마시는 멋과 더불어 인간의 건전한 삶의 길을 걷자는 것을 말함이다. 차는 처음에 약용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기호음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건음료로서 효과가 큰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차는 우리 인간들이 건전한

한 삶의 길을 걷는데 있어 가장 소중한 몸을 튼튼히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귀중한 기호 음료이다. 뿐만 아니라 차를 끓이고 마시며 대접하는데 있어 따르는 정성과 예의범절 및 청정하고 고요한 분위기 등에서 알뜰한 각성의 생활을 체득(體得)하게 된다. 즉, 다도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면에 있어 사심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씨를 기르고 나아가 봉사하고 일하는 실천력을 기르고 이를 통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한없는 기쁨 속에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생활염색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생활염색”

실생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염료 및 직물을 사용하여 질리기 쉬운 옷들이나 커튼, 식탁보, 나만의 감각을 살린 스카프, 넥타이, 손가방, 베개폼, 이불등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직접 바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작품으로 표현해 낸다.

수업과정은 3분류로 나뉜다.

- 기초과정 - 침염이나 흘치기염
- 중급과정 - 직접염, 풀염, 파라핀염, 날염 등 각종 기법 위주 실습
- 고급과정 - 혼합염으로 예술작품 유도



밥로스 미술

매주 월·목요일 오후 4시 ~ 6시

“밥로스”

밥로스미술은 초보자도 쉽게 화폭에 담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환상적인 기법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TV를 통해 최장수 미술프로그램입니다.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애호가였던 밥로스는 간암으로 투병하여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변함없이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가

르치며 백만권의 서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995년 6월 4일 그의 집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미술계의 그의 업적과 전세계인은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밥로스재단을 설립하여 그의 자연애호주의와 창조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예

매주 월·목요일 오후 6시 ~ 8시

“서예”

서예는 점과 선·획의 태세(太細)·장단(長短), 필압(筆壓)의 강약(強弱)·경중(輕重), 운필의 지속(遲速)과 먹의 농담(濃淡), 문자 상호간의 비례 균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묘한 조형미가 이루어지는 조형예술이다. 서예는 실용가치 뿐 아니라 예술적 행위로서

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씨쓰기 행위와 다르며, 문자디자인과도 구별된다. 반드시 모필을 사용하여야 하고, 글자간의 구도와 행간의 구도인 장법을 강구해야하며, 먹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사용하였을때 비로소 서예라고 할 수 있다.



LEX 교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렉스 다언어 교실”

온 가족이 함께 다언어(7개국) 환경에서 SADA(Sing Along Dance Along) & 7개국 언어 씨디를 듣고 말하는 렉스 활동 프로그램에 의해 자연스런 다언어환경에서 익힌 언어와 열린마음으로 국제상호간 가족단위 및 청소년 간의 상호무로 민박교류를 하는 사단법인 “LEX 청소년 문화교류

연구소”의 회원으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lex.or.kr 에서 확인하세요.

※LEX(The institute for language Excursion and Exchange)



2007.10.21 “충청인 문화 큰 마당” 성황리 이뤄져

1,200만 충청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고향 사랑하는 마음, 향우 사랑하는 마음이 온 나라에서 으뜸이 가는 “강한 충청도”, “엄청난 충청인”의 상으로 태동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이 행사가 차려졌는데, 이날 행사는 의식행사와 공식행사 및 화합행사로 진행되었고, 이 행사로 인해 충청인을 명칭하다는 속설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엄청난 충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

향우회에서 고향으로 책 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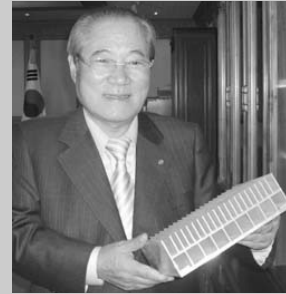


향우회 김용래(전충무처장관) 회장은 10월 4일 향우들께서 정성스레 모아준 교양도서 1,000여권을 아산시립도서관에 기증하여 교육문화도시로의 육성에 큰 향토애를 전해줬다.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도서를 소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2005년초에 ‘중

은책 보내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일반 시민은 물론 각 단체등도 적극 참여시켜 도서수집을 해 왔는데 향우회도 적극 참여하여 (2005년에 2,100여권, 2006년에 1,200여권, 금년 1,000권)전체 4,300여권을 기탁한 효과로 아산시민 및 학생들에게 지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희소식이다.

이동원 고문의 명복을 빌며...

향우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향우회 창립에 일조를 하신분으로 향년 81세에 이동원 고문이 숙환으로 8월 27일 별세하였다. 1927년 염치에서 출생하셔서 일선검사장, 법무장관을 지낸 아산의 거물 중 한분이셨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중견파워 하장홍 회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에서 태어나 오늘에 드높은 한국을 세계시장에서 우뚝 서게 만든분으로 하장홍(74세) 회장께서는 2001년 9월 테러로 봉쇄된 미국 뉴욕세계무역센터 자리에 건축될 『프리덤타워』높이가 541미터고, 108층의 거대한 알미늄 외장재전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신양금속공업(주)의 1976년 설립 이후 31년 동안 오직 알루미늄 제품생산에 노력하여 왔으며 명실공히 알루미늄 제품 생산의 선두 업체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여 이같은 성과를 낸 것이다. 노.사간의 화합된 모습으로 최고품질을 지향하며 고객만족이라는 정도 경영으로 오늘날의 신양금속을 이룩하여 왔는데 이는 아산의 자랑이요, 한국의 자랑이다.



아산 중부권 최대 복합도시로 건설

아산시는 지난해 수출 230억불로 전국 2위, 무역수지 흑자 190억불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성장 잠재력을 평가 받았으며, 아산신도시와 세계 최대규모의 탕정 LCD단지를 축으로 한 동부권과 온양권-서부권을 연결하는 동서발전축을 형성하고 북쪽로는 2009년에 완공되는 아산테크노벨리와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변 개발을 통한 둔포지역 개발과 남쪽 송악지역의 시가화 지역개발, 전원 녹지개발 등으로 동-서와 남-북을 축으로 한 유기적 개발과 인주산업단지, 도고농공단지 등 전국 최초로 신도시-원도심 동시개발로 균형발전을 앞두고 있다.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으로 교육도시 도약

아산시는 지난 9월 28일 재정경제부 지역 특화발전특구 심의회에서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사업의 확대 추진은 물론 국제학교 및 특성화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 교육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아산시 관광 게임 개발

아산시가 아산의 유명한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는 관광 게임을 개발하여 시 홈페이지 게재하였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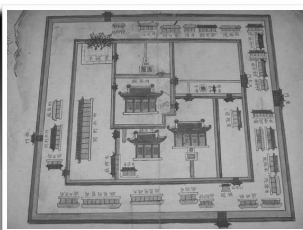
아산시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아산시가 8월 16일 충청남도에서 주최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투명·성과혁신 분야에서 “재정·설계 마이트스팀 운영”이라는 돋보이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여 오는 10월 1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중앙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지역 사업의 품질을 향상, 예산절감, 심사를 전문화하여 신뢰를 강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의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재정·설계심의 위원회에 시민대표 등을 참여시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정호에 수생식물섬 효과

아산시가 조성한 수생식물섬은 총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정호 산책공원에 식재된 노란꽃창포와 연꽃은 질소와 인을 감소시키고 햇빛을 차단시켜 녹조의 원인현상을 방지효과, 오염된 수질을 개선제품으로 폐합성수지(PE)와 페트병을 이용하는 자원재활용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고 있다.



온양행궁 복원사업추진

아산시는 최근 수도권 배후 휴양·관광·문화도시를 부각시켜 이 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온양행궁의 복원사업에 대한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기대가 크다.

우리고장 소식



강희복 아산시장

아산시장은 지난 9월 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받았다.

이상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유공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아산시는 지난 9월 14일(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07지방자치경쟁력 조사결과 경영활동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지방의 경쟁력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진구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지난 7월16일 아산시의 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고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아산시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가 수여 된 것이다. 한편 이고문은 지난 9월19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정치활동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충남 도당선거대책본부 사무실 (대전→아산) 11월11일 이전하였다.



이기원 아산시의회 의장

지난 2007. 10. 6. 이기원 아산시의회 의장은 탕정은빛 축제때 면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데 이 상은 탕정지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탕정지역주민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여하는 상이다.



안억진 전 경찰서장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종합청사 경비대장으로 전보되어 우리고장을 떠나셨는데 안억진 전 경찰서장께서는 우리고장에 부임하여 질서유지와 통합교통정보체계 확립을 위한 천안~

아산 광역시스템 설치 등 분골쇄신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고학곤 아산경찰서장 새로 부임하심

고학곤 총경이 제 61대 아산경찰서장으로 취임. 8월16일 취임식을 가졌다.

고학곤경찰서서장은 뛰어난 엘리트로 충남 금산서장과 대전청 대전정부청사 경비대장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부임 3개월을 맞아 그동안 치안성과와 앞으로 치안활동 전개방향을 설명하고 경찰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준 지역주민 1200여 명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 우리고장 자긍심을 일깨웠다.

아산경찰서는 94년간 온천동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7월 28일~29일 풍기동 새청사로 이전 하였다.

안병옥 아산교육청 교육장



11월 9일(금)에 교육청에서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신포지엄”이 개최 되었는데, 아산지역 특성화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하여 과학체험마당 및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자리였다.

11월 14일 (수)에 2007년도 임대형민자사업 협약식이 충청남도교육청(혁신실)에서 각지의 교육장께서 한자리에 모여 민간인들이 투자하여 학교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협약이 실시되었다.

아산시 남원시와 자매결연



아산시는 11월 19일 남원시와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앞으로 양 도시는 각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자율에 의한 생산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 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지역문화창달 및 주

민복지향상 도모, 행정·문화·예술·관광·경제·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관심사항을 상부상조로 지역발전에 기여 등이다.

농협아산지부 조합원 교육 선두자



농협중앙회 아산지부(지부장 이강구)는 지난 8월 20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조합원들에게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향의 농업발전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양농협, 제 13대 김준석조합장 취임



지난 14년의 세월 동안 불철주야로 조합원을 하나된 마음으로 큰 성과를 일궈내신 광노항 조합장이 이임되고, 11월 16일 온양농협조합장 김준석 신임조합장이 취임되었다. 취임사를 통해 “선

배님의 뒤를 이어 조합원들과 함께 최고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혀 앞으로 기대가 크다.

생활의 지혜

피부를 지키는 여러 가지 목욕법

건강을 지키는 데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목욕이 꼽힌다. 목욕은 몸을 청결히 하는 것 외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진정·진통작용을 하며,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준다.

목욕은 1주일에 2~3회 이상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증상에 따라 목욕물의 온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38도 정도에서 약효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며, 심신의 긴장을 줄여주는 데도 좋다고 한다.

[보습 목욕 올바른 순서와 방법]

1. 목욕 전 생수 한 컵 마시기
2. 적당한 물의 온도 맞추기
3. 바디 클렌저로 마사지 하기
4. 목은 각질 제거는 주 3회 정도 하기
5. 마무리 바디 케어로 물기 닦아 낸 뒤 바디오일이나 로션 바르기
6. 목욕 후 물 한 컵 마시기



▶ 피부에 탄력이 없을 때...레몬목욕

레몬 반 개를 썰어 뜨거운 욕조에 넣고 레몬액이 우러나올 동안 가볍게 샤워를 한 뒤 욕조에 몸을 담근다. 귤보다 비타민이 몇 배나 더 많은 레몬은 피부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므로 피로한 피부에 좋다. 꾸준히 하면 탄력있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꿀 수 있다.



▶ 다이어트를 원할 때...죽염·소금목욕

욕조에 소금이나 죽염을 3~4 큰 술 넣고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욕조에 들어가 15~20분쯤 스펀지 등으로 부드럽게 몸을 마사지한다. 소금목욕은 삼투압 효과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 신경통, 관절염에 도움이 되며, 알레르기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다.



▶ 피부병에 걸렸을 때...숯목욕

숯은 일반 가정의 욕조 크기를 기준으로 5kg 정도가 적당하다. 숯을 부직포에 담아 욕조에 넣고 그 물을 사용한다. 쓰고 난 숯은 건조시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쯤 햇볕에 말려주는 것이 좋다. 서너달에 한 번은 새 숯으로 바꾼다. 숯목욕은 관절염이나 장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잠이 안 올 때...식초목욕

욕조에 물을 절반쯤 채운 뒤 식초를 한 컵 섞어 목욕을 한다. 식초의 유기산이 피로감소를 빠르게 도와준다. 또 식초는 고혈압의 원인인 나트륨의 배설을 돕는다. 잠자기 전 식초목욕을 하면 잠을 푹 잘 수 있다. 손발이 냉증이 있는 사람이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에게도 좋다.



▶ 몸이 찌들 때...썩목욕

욕조에 먼저 썩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은 뒤 10분쯤 몸을 담갔다가 찬물로 샤워를 한다. 이 같은 방법을 2~3회 반복한다. 썩목욕은 감기에 걸렸을 때

나 기미, 여드름 치료에도 좋다. 또 속에는 철분과 칼슘이 함유돼 있어 빈혈, 요통, 산후통에도 좋다.



▶ 피곤하고 지칠 때...사과목욕

사과 2개를 갈아 즙을 낸 후 면보에 싸서 욕조에 담근다. 사과향이 욕실에 퍼지기 시작하면 몸을 담그고 15분쯤 있는다. 몸이 편안해지면서 신진대사도 원활해진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진정작용이 있다.



▶ 우울할 때...아로마목욕

욕조에 더운 물을 받은 뒤 아로마 오일을 5~10방울 떨어뜨려 물과 잘 섞고 15~20분쯤 몸을 담근다. 아로마 오일은 여러 종류가 나와 있다. 만다린(원기회복·우울증), 제라늄(갱년기 증상), 로즈(불안·초조·정신적 쇼크), 페퍼민트(집중력·기억력 저하), 카모마일(신경이 예민하거나 분노, 갱년기 장애), 라벤더(불안감·불면증), 자스민(우울증·자신감 부족·불감증)



▶ 지성·알레르기 피부...미역·다시마목욕

다시마와 미역을 소금기가 없도록 물에 여러 번 씻은 다음 잘게 썰어 면주머니에 싸 뜨거운 욕조에 담근다. 미역은 지성·알레르기피부나 가려움이 심할 때도 좋다.



▶ 땀이 많고 임내가 날 때...녹차목욕

녹차를 마신 뒤 남은 티백을 모았다가 5~6개를 욕조에 넣고 5분쯤 지난 뒤 몸을 담근다. 녹차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냄새를 없애 주고 피부 탄력도 높인다.



▶ 피부 노화방지를 위해...당근목욕

큰 당근 두 개를 잘라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다음 당근물이 충분히 우러나면 그 물을 욕조에 넣는다.

강호사시

조선 초의 명재상인 맹사성
(1360~1438)의 고택으로
알려진 맹씨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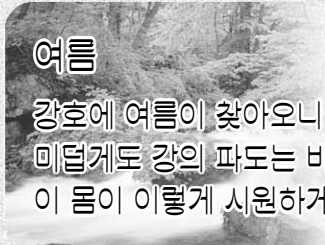
봄

강호에 봄이 찾아오니 절로 흥이 돋는구나.
막걸리를 냇가에 앉아 먹는데 금린어(錦鱗魚-쏘가리)를 안주 삼고.....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亦君恩)로구나.



여름

강호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당에 일이 없이 한가하다.
미덥게도 강의 파도는 바람을 보내나니
이 몸이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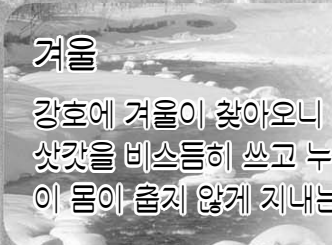
가을

강호에 가을이 찾아오니 고기마다 살이 붙어 가는구나.
작은 배(小艇)에 그물을 실어 띄워 놓고
이 몸이 이렇게 날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겨울

강호에 겨울이 찾아오니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구나.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지어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금린어(錦鱗魚) : 비늘이 뽀얀 고기. 쏘가리 -역군은(亦君恩) : 역시 임금의 은혜
-소정(小艇) : 작은 배

주제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생활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국문학 사상 최초의 연시조이다.



아산 맹씨행단에 있는 정자인 '구괴정(九槐亭)'

정자 아래는 넓은 들판이며 한 가운데로 금곡천이 흐르는 것을 한 눈에 내려다보며 맹사성이 휴식을 즐기던 곳.

한편으로는 이 정자 이름을 '삼상당(三相堂)'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 때 이곳에서 정승을 지낸 세분이 유희를 즐겼다해서 붙여진 이름.

아산시의 자랑 고불 맹사성은 고려 공민왕 9년(1360년) 7월 17일에 송도(지금의 개성)에서 맹희도의 맏아들로서, 아명(兒名)은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 또는 동포(東浦). 시호 문정(文貞)이다. 맹씨가 중국에서 우리 나라로 들어온 인연은 당나라 한림원 오경박사인 맹승훈(맹자의 39대후손)이 공자님의 상을 모시고 유교철학을 전파하고자 신라 진성여왕 2년(888년)에 들어오고, 맹사성은 맹자님의 54대 후손이다.

조선조 세종 때에 좌의정을 지냈다.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평민적인 생활속에 소타고 다니셔도 고아한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젊었을 적에는 출중한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양초 권근의 문인이다.

그런데 고불이 고려말 최영 장군의 손주 사위이며 아산의 맹씨행단이 최영장군 조부가 지은 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말 뜻〉

-택료 : 막걸리

-홀리 : 홀러가게

-강파 : 강의 물결

-소일 : 마음을 붙여 심심치 않게 세월을 보냄

-계변 : 시냇가

-유신한 : 신의가 있는. 미더운

-살져 : 살이 올라

-비껴 : 비스듬히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10.10.

온양문화원 임직원 일동